

실물경제 파악위해 민생현장 '소통'

김관영 지사, 소상공인연합회·수출기업 등 만나... "비상시국 속 민생경제 극복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시국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수출중소기업들을 잇따라 만나 소통을 하면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8일 김관영 도지사는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라현 회장을 비롯해 시군 지회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며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공급 확대, 이차보전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카드수수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책 등을 설명하며 도의 시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도 시책에 반영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단들도 "도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또 이날 오후 (주)정석케미칼을 방문해 완주군 관내 수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석케미칼을 비롯해 (주)바이텍, 원진알미늄, 달새양, (주)케이에스아이 등 5개 수출기업 대표가 참여했으며, 김지사를 비롯한 문성철 완주부군수, 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한국무역협회 박준우 전북본부장, 코트라 한창운 전북지원단장 등 시군 및 수출 유관기관에서도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비상계업과 탄핵 정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기업대표는 "환율 상승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

재의 원가 상승이 격정이다.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오를 경우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한 식품기업은 해외 수출 시 식품분야의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정보 제공을, 자동차 관련 기업은 R&D 연구개발비 및 개발인력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수출기업이 느끼는 불안은 더 크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도에서도 수출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성장 '눈길'

'202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성과전시회' 개최



18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성과전시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콘텐츠 산업이 국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전북자치도 콘텐츠 성과전시회'에서는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이 돋보였다.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함께 혁신, 함께 성장 '새로운 전북의 미래, 더 특별한 콘텐츠로 만나자'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진흥원의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북글로벌게임센터 등 거점 센터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40여 개사의 콘텐츠 기업이 참가해 상용화에 성공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말레이시아와 일본 시장에 진출한 썬나샤

이드업이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는 '스타트업 3년 차 브랜드 캐릭터 <에그시> X 해외 대기업 연계 캐릭터 라이선싱 비법'을 주제로 우수 성과를 발표해 선배 기업가와 콘텐츠코리아랩 예비 창업자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본부, 2036년 올림픽 유치 기원 위한... '한마음 다짐행사' 개최

영상 시청·손 피켓 퍼포먼스 진행... 올림픽 유치 위한 도민의 열망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저녁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 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소방본부 한마음 다짐행사'를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7일 저녁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 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소방본부 한마음 다짐행사'에서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탤

다.

행사에 앞서 소방본부는 2036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한계를 넘는 새로운 시도,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문구가 담긴 손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스포츠 정신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원을 공유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퍼포먼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된다면 지역 발전과 혁신 성장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올림픽 유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전북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SNS 캘린더를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올림픽 유치 기원을 위한 열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선정... 군산·정읍·남원·김제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며 본격적인 통합 돌봄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술지원형 모델은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

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전주시, 울해 정읍시를 통해 쌓은 통합돌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4개 시군 선정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한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3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 2억원)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 담당자 교육, 협력 시스템 정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국가산단, 고용특구 지정... 지역 인력난 해소 본격화

새만금 국가산단 향후 5년간 1만명 이상 고용수요 예측 고용 활성화 지원기관 설치·운영 예정 등 대응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개최하여 특구지정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산업 및 생산이 집적된 '새만금 국가산단단지'를 고용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관계자와 산업분야 교수, 고용전문가 등 10명 위원들이 참

석했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가 발생 예상되지만,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안)을 수립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장 중심의 고용수급 체계를 운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신속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만금 국가산단단지를 고용특구 지정 범위'로 한다는 내용은 오는 27일 전북

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고시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는 새만금 국가산단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특구 위원회를 통해 발전 방향과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이어갈 것이며,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고용 활성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중견기업연합회원사 대상 새만금 투자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만금 현장 방문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로, 회원사만 611개에 이른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5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와 투자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북의 투자 환경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투자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고, 이번 새만금 현장 방문과 투자설명회가 성사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연합회 임직원 및 회원사 관계자, 투자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산단단지와 주요 투자 예정부지를 둘러본 후, 새만금의 기업지원 인센티브와 개발 현황, 투자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투자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1, 2, 5, 6공구 부지가 대부분 투자협약이 완료된 상태로, 2025년에 3, 8공구를 추가로 매립해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견기업연합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